

생태공원의 개념과 의의

전 승 훈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생태공원의 시작

생태공원은 ‘생태’라는 용어만큼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해석을 가지고 있다.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는 1980년 Schwarz가 그의 저서 “Nature Garden”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 개념은 1973년 Le Roy의 Ecological garde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e Roy, Schwarz 등은 생태공원의 창조자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들은 도시속에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위한 생태공원, 자연공원을 환경교육과 연계시키면서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공원운동을 유럽각국에 전파시켰다. 생태조경운동은 1920년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조성에 관한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유럽에서 자연으로의 복귀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68년 미국에서 도시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으며, 1973년 영국에서는 전통적 도시조경의 황폐성을 비판하면서 도시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생태적접근의 공원조성이 강조되었다.

최초의 생태공원은 1977년 런던 템즈강변 Tower Bridge 인근에 약 2 에이커 규모로 조성된 “The William Curtis Ecological Park”이 생태공원으로 명명된 최초의 공원이었으며, 점차적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생태공원의 시작은 개념의 형성 이전에 도시내의 버려진 자투리땅에서 자연스럽게 야생초화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생

겨나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생태조경운동과 자연스럽게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날로 악화되어 가고 거칠어지는 도시환경 문제와 기존의 공원이 갖는 기능적 제한을 인식하면서 도시속의 야생자원이 본래 자연친화적(biophilia)이며 친환경적(environmental friendly)인 도시민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아울러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생태공원과 생태적 조경기법이 소개된 이후, 1993년 서울시의 난지도생태공원계획 발표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1997년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공원조성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태공원의 개념

생태공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공원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생태공원은 조성과 관리측면에서 생태적 과정들을 중시하는 공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온전한 자연이나 생태계와는 구분된 속성과 목적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생태공원의 범주는 ecological park, natural park, eco-park, ecological garden, environmental park 등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

는 일반공원과 같은 법정공원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기존의 공원들과 달리 공원내 자연적 요소와 이들 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적 기능이 특히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생태공원을 인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잠재 자연의 요소가 남아있는 일정한 생태공간을 인간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재창조하려는 의도에서 생태적으로 흥미 있는 공간과 요소를 생태적 시공방법으로 복원, 조성하는 공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자연성이 뛰어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현행 국립공원이나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조수보호구역과 같이 생태계, 그자체의 고유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ecology park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자연의 원형을 생태적으로 복원(restoration)하려는 개념과 구별된다.

결국 생태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람과 자연의 요구도에 대한 균형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생태공원에서 다소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도의 제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공원은 일반공원들이 갖는 제반 기능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강조하게 된다.

생태공원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

흔히 생태공원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생태공원의 가장 큰 의미로 주장되고 있는 최소의 에너지 투입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생태공원은 자연생태에 기초한 자연순환계를 형성하여 인위적인 에너지의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공원이 그 조성에서부터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경비절감과 반환경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이다. 물론 생태공원은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되며 또한 진행과정을 자연발생적으로 존치

시킴으로 기존의 공원에 비해 조성과 유지 및 관리의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최소의 에너지 투입은 결코 방치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많은 도시생태공원들이 그 공간적 제한이나 주변 생태계와의 이질성으로 인해 변질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초기의 조성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생태공원 역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조성의도를 충분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관리계획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생태계의 원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사람의 이용을 허용하는 공원형태로, 개념적으로 자연이 최우선이 되는 ecology park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공원(ecological park)은 조성 목적이 사람의 이용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실현되어지는 공원이다. 결국 사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 역시 중요한 요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생태요소 중심의 관리로 이용자에게 무조건적인 불편을 감수하게 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물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태공원의 조성 목적, 기능에 부합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해야함은 당연하며 한편 사람들의 이용과 요구에 대해 생태공원의 격에 맞는 수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

셋째 생태공원은 환경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제한적인 생태적 과정들을 실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종의 무분별한 다양성 확보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특정한 생물종의 집중적인 도입과 육성이 중요하며 또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체계나 기능의 복원보다는 실현가능한 생태적 속성을 선별하여 부분적으로 응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즉 생태공원의 설

계는 완전한 자연을 본따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흥미롭고 가치있는 자연의 일부를 잘 정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도시생태공원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생태공원들의 차별화를 근거로 한다.

넷째 생태공원의 구성에 기여하는 생태학적 지식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생태학자들과 생태공원설계자들간의 상호협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순수 생태학적 접근은 보다 생태공원의 계획과 설계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한 중명세의 작성, 생태공간과 일체화되지 못하거나 난해한 이론적 접근으로 실행가능성이 낮은 결과의 도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들어 생태공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소생물권의 구성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자. 소생물권은 생물들이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서 흔히 서식처의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소생물권은 생태공원내 도입되는 생물종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조성되며 기본적으로 생태적 조성기술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생태공원에서의 소생물권은 복원의 개념보다는 어디까지나 자연을 본떠 조성되는 공간이므로 완벽한 생태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한계가 명백하다. 결국 생태공원은 생태계복원이기 보다는 모방에 가까우며 나아가 필요에 따라 생태적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생태계의 창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균, 1992. 난지도 자연생태공원을 위한 방향제시. 환경과 조경 61: 60-65.
- 안봉원 외 역, 1998. 생태환경계획설계론-자연환경복원기술. 도서출판 누리에.
- 오구균, 1992. 생태공원 계획 및 설계. 환경과 조경 61: 48-53.
- 이기철, 1992. 생태공원의 유지관리와 지속성. 환경과 조경 61: 54-59.
- 장병관, 1992. 생태공원의 필요성과 의의. 환경과 조경 61: 44-47.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기 조성된 도시생태공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적 조경 평가지침 및 적용공법의 개발. 167pp.
- 한강관리사업소. 1999.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모니터링 보고서. 97pp.
- 현중영, 1992. 외국의 생태공원 이용사례. 환경과 조경 61: 66-71.
- 환경부, 1996.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한국 환경기술개발원, pp.1-30.
- Lennart, I. H. 1992. The Ecological Principles of Nature Conservation. Elsevier. Science Publishers LTD. 436pp.
- Spellberg, I. F. 1991. Monitoring Ecolog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4pp.
- <http://parks.seoul.kr/kildong>.
- <http://flower.citynet.co.kr>.
- <http://www.natashakern.com/excerpts/garden.html>.
- <http://rbke.gov.uk/kcservices/leisureservices/leisure06.htm>.
- <http://www.envirotrust.org/ecology.htm>.